

■ 우리 구 이사람 — 광복회 박 정 오 부산지부장

올림픽 보며 해방의 기쁨 다시 느껴

올해로 광복 67년. 나라 잃은 설움을 온몸으로 부대끼며 어린 나이에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펼쳤던 그에게 광복절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남구 유일의 생존 독립 유공자이자 광복회 부산지부장을 맡고 있는 박정오 응(대연동·87)을 대정동 민주공원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만났다.

통유리로 된 벽면 너머로 서대신동이 한눈에 들어온다. 고지대에서 내려다보인 온 시야가 시원하기까지 하다.

“저기 보이는 곳이 부산 형무소입니다. 1년 넘게 고초를 겪으며 독방에 갇혀 내일을 기억할 수 없는 암울한 시절을 보냈던 곳이지요. 그 때를 회상하며 바라보고 있으면 탄압이 교차합니다.”

그날은 마침 올림픽 축구 한일전에서 우리나라가 압승을 거둔 날이기도 했다.

박 지부장은 중학 시절 친구 13명과 손국당을 창설했다. 조국을 위해 내 한 톰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다. 부당수를 활동하며 일본 우두머리 시해, 군사시설 파괴, 집단거주지 남포동일대 방화 등을 목표로 삼고 혈서로 서명 날인했다.

영도대리, 국제시장, 부산대파트, 부산진시장 등 곳곳에 ‘대한독립만세’ 벽보를 붙이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갔다. 더 이상 국내 활동이 어렵다는 걸 깨닫고 1944년 가을 만주로 가서 독립군과 합류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당하게 된다.

2인1조씩 이동해 함경북도 길주에서 합류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올라가던 중이었다.

형사와 일본 헌병들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부산 형무소 미결수 감방에 수감됐다. 한 달 이상 계속된 고문과 취조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릴 정도라고. 당시 15~16세였는데 그를 포함한 몇몇은 주동자로 몰려 독방에 격리 수감되어 100일간 갇혀 지냈다. 사형수 사이사이에서 끼여 있어 교역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8월18일 출감됐으니 감방에서 해방소식을 접했다. 그런 날이 오리라

곤 상상을 못한 나날이었기에 그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서로 부둥켜안고 꼬집어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해방소식을 접하고 3일을 더 감방에서 지냈는데 그곳에 빈대가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운동을 한다고는 했지만 막상 밖으로 나오니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져 있었다.

건강을 되찾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렸다. 동료 2명은 광복을 눈앞에 두고 옥사해 그들의 몫까지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맹세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조국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너무 영리적이고 기계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이란 울타리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남구 유일의 생존 독립 유공자 박정오 응이 광복회 부산지부 현장에서 광복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

깨달아야 합니다. 조국 잃은 슬픔은 이미 잃은 송아지의 슬픔과 같아요. 다시는 비참한 현실에 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 지부장이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그런 의미에서 올림픽 같은 행사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니 매우 뜻깊고 고맙게 생각한다. 각고의 노력으로 기량을 펼치며 국위를 선양하는 선수들이 나라사랑의 중심축이다. 특히 도마의 양학선 선수의 경기를 가장 감명 깊게 봤다고.

국경일 태극기달기 운동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태극기는 피의 흔적이다. 태극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려야 한다. 매스컴은 물론 기관 단체들이 앞장서서 주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

80주년이다. 거사 전 “백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고 유언했던 윤 의사는 2세들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국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라”는 말을 남겼다.

수많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나라사랑의 초석이 돼야 할 것이다.

광복회 부산지부장 박정오 응은 해마다 이맘때면 가장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사람들 중의 한명이다.

각종 언론 매체의 인터뷰는 물론 강당의 요청이 쏟아진다.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기념사를 낭독하는 등 세월을 거스른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정미 기자

■ 반갑습니다 — 국회 정무위원회 김 정 훈 위원장

서민경제 회생위해 앞장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정훈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경제민주화와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의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가경제, 특히 서민금융을 원활히 하고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경제민주화, 즉 대기업, 재벌에 집중된 경제를 완화해서 서민들과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정훈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정무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정무위원회는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과 그 산하기관을 비롯, 공정거래 위원회, 국가보훈처, 그리고 금융정책을 관할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이다.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위원들 간의 합리적인 토론을 이끌어 내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는.

▶이번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금융기관 선진화와 글로벌화라고 생각한다. 국제금융하브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정부위는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 금융기관 등을 육성해 국내 금융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우리 정부 위원회에서는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토록 하고 향후 대외



충격 시에도 견뎌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의 대다수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문헌금융단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지난 18대 국회에서 부산금융중심지 성공추진 협의회를 발족하고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금융기관 유치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지난 2011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앞으로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 및 파생특화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거래소 부산 유치를 위해 환경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금융특화대학원, 금융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기관을 적극 접촉하고 있다. 정무위원장으로 도맡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성숙화 시키고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함으로써, 문헌금융중심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옥련 기자

작은 배려가 고객에겐 큰 감동

■ 오피스도 친절지기

우암2동 윤성진 씨



신속한 민원처리 상냥한 응대 주민 섬김의 초심 전기가 좌우명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다만 퇴근시간이 넘어서까지 업무를 마치지 않은 동료들 도와준 것 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친절카드의 주인공 윤성진(34·행정7급)씨는 재처와 유머가 넘치는 우암2동 주민센터의 공무원이다.

성진씨는 현재 우암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동안 근무경력으로 쌓은 노하우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편이라 동료

를 비롯한 주민들에게 칭찬이 자자하다.

권상수(우암2동)씨는 ‘지반변경 신청’시 일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어 참 고맙다고 친절 평가 카드를 보내왔다.

오점순(진구, 부암동)씨도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과 같이 방문해서 ‘전산 전 주민등록표 제작 등본’을 신청했을 때, 아버지의 지나온 과거 행적을 알아보기 위해 퇴근 시간 이후까지 인상하느라 쉼 없이 열과 성을 다해줘 고맙다고 감사의 글을 보내왔다.

2004년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성진씨의 이런 친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첫 발령지였던 문현 2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주민등록일제 정리기간 중 말소과장에서 2006년에 해아졌던 엄마와 아들을 상봉시켜 준 일은 아직도 동료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친절사례로 유명하다.

성진씨는 “저의 조그마한 관심과 배려가 민원인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내심 놀랐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을 섬기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기자

■ 사람과 사람

부경대 총장 취임



대 제5대 총장 취임식에서 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태극기달기 캠페인



약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바둑대회 노년부 우승



양경선(호오동·65)씨가 최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국제신문사 주최로 열린 제14회 부산시장배 시민바둑대회에서 노년부 우승을 차지했다.

■ 화제의 인물 — 남구 현혈왕 문헌1동 김 지 훈 씨

2주마다 한번 300번 현혈

교통사고 이후 계속 남구 최다

생명 살리는 일 동참 당부



현혈횟수가 300번에 이르는 현혈왕이 남구에 살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은 문헌1동에 살고 있는 김지훈(39)씨로 지난 9일 오후 부전현혈의 집에서 300번째 현혈을 해 주위의 관심을 모았다.

부산에서는 5번째이며 남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지훈씨가 현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우체부로 재직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해 3년간 병상에 누워있다 퇴원하면서부터이다. 오랜 병원 생활 중에 현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 2주마다 한번 꼴로 현혈에 동참하며 환우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

지훈씨는 “현혈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송고한 사랑 실천이자 인류애의 시작”이라며 현혈운동에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지훈씨는 현혈을 하며 건

강을 되찾고 있다.

현혈을 하고 나면 자신의 몸 상태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피가 건강하지 못하면 현혈을 할 수 없기에 지훈씨는 금연과 절주로 건강한 몸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지훈씨는 현혈 외에도 백혈병 소아암협회 카페(수호천사 봉사단) 지기로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찾아 봉사하고 있다. 주말이면 멀리 대구까지 달려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있다.

자동차부품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지훈씨는 노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함께 봉사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문민희 기자

남구 보훈회관 내 입주 단체 현황

남구 보훈회관(대연동 966-11번지)이 지난 5월 29일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구에 거주하는 보훈가족은 보훈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시 해당단체 보훈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적극 안내해 드립니다.

단 체 명	회장	연 락 처	사무실
6.25참전유공자회 남구지회	고영철	(사)612-5613 (H)010-5605-9901	1층
월남전참전자회 남구지회	이재우	(사)612-0260 (H)011-596-5226	
특수임무수행자회 남부지회	이백소	(사)637-8240 (H)010-4442-4015	
무공수훈자회 남구지회	김광빈	(사)070-8115-4688 (H)016-560-1510	2층
고령제전우회 남구지회	김윤진	(사)625-9908 (H)010-9304-8583	
전몰군경미망인회 남구지회	정환자	(사)621-0628 (H)010-3881-8279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한옥자	(사)621-0625 (H)011-556-2917	3층
전몰군경유족회 남구지회	박정자	(사)626-8481 (H)010-4503-3362	

동해참가자미희집

대표 : 김 성 희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동 1756-20번지

단체환영 ☎633-0151

참가자미희 특대: 100,000 / 대: 80,000
중: 60,000 / 소: 50,000

모 등 회 특대: 100,000 / 대: 80,000
중: 60,000 / 소: 40,000

점심특선: 13,000
생우력밥: 10,000
덮밥: 8,000
가 자 미 회: 12,000

◀문현대방향 ▶
아이마트 ▶ 동해참가자미희집 ▶ 경성대방향 ▶
구지영내과의원 ▶
교촌치킨 ▶ 동해참가자미희집 ▶
문현아이마트 ▶

웃어요! 웃어봐요 (웃음·유머교실) 회원모집

조상영 웃음연구소 웃음·유머 회원 모집
· 개강: 2012년 8월 27일(월), 9월 3일(월)
· 매주(월) 오전반 11시~12시
· 매주(월) 저녁반 오후 7시~8시
· 선착순 50명 특별수강료(3개월: 9만원)

부산예술회관 웃음·유머 회원 모집
· 개강: 2012년 8월 28일(화), 9월 4일(화)
·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12시
· 장소: 부산예술회관(TBN 교통방송국 옆)
· 선착순 200명 특별수강료(2개월: 3만원)

*** 웃음치료전문가 1급, 유머학박사 1급 자격증 취득가능 ***
- TBN 교통방송(94.9MHz) <웃어요! 웃어봐요> 생방송 출연, 2011년 웃음 유머 명강사 선정 -

조상영 웃음연구소 : 010-4567-2233 (부경대 대연캠퍼스 정문 앞 4층)
(카페명 : 한국웃음치료연구협회 : http://cafe.daum.net/johahahoho)

윌리스 병원

중풍·치매·파킨슨병 두통·어지럼·이명클리닉 개소

신경과 / 내과 / 안과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한방과

남구청 입구, 못골전철역 도보 2분 요양병동 운영

Tel. 638-7575 www.willishospital.co.kr

고객을 왕자처럼 모십니다.

왕자익스프레스

언제 어디서든 119같은 이사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업체를 선택해 보십시오.
장거리 운반시에도 책임자가 도착까지 책임을 다해 모십니다.

포 장 이 사 일 반 사 무 실 이 사

중량물 취급 숙련자 항시 대기!

문의 : H.P 010-9575-2245 Tel 611-3000, 633-1212

아모레 퍼시픽 **헤라·설화수** 주부사원 모집

재미있게 같이 일해요!!!!

- 급여와 의료비, 경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육아 보조금 지원
- 10시 출근, 일·공휴일 휴무
- 기타 다양한 지원혜택

헤라·설화수
판매·상담
☎ 627-2225

친절상담 → 최경숙 부장

주.야 직통상담 : 011-579-1122

아모레 퍼시픽 **남부오름지점 T.627-2225**

단전호흡, 기체조, 명상 **국선도**

우리의 몸이 **국선도**를 필요로 할 때

-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며 화를 자주 낸다
- 불면증으로 항상 수면이 부족하다
- 각 관절통증, 특히 목,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 온 몸이 빠근하고, 살이 찌는 것 같다
-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
- 학생의 경우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 당뇨 초기증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오전 10:30~11:50 오후 06:40~08:00

국선도 대연수련원 ☎ 612-9393
(대연5동 기아자동차 옆)